



치안협력 구심점 ‘주민자치경찰연합대’ 출범 지역대 간 교류 강화·공동 치안활동 조정 등 수행

제주지역 치안협력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제주 주민자치경찰연합대’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오후 5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위성곤 지사와 주민자치경찰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경찰연합대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주민자치경찰대는 2009년 87명의 주민봉사대로 출범한 이후 현재 340명 규모의 주민참여 치안조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자치경찰대는 학교방범과 야간순찰, 교통관리, 취약계층 문안순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자치경찰단의 현장 치안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만 학교방범 219회(2334명), 야간순찰 183회(1260명), 교통관리 80회(894명), 문안순찰 41회(122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경찰연합대는 지역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치안활동을 조정하는 도 단위 협력기구로, 지역별 활동과 현안을 공유하고 합동순찰과 안전 캠페인·대원 교육과 정보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 치안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 주민자치경찰대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구심점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경찰대는 인공지능(AI) 치안안전순찰대와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해 순찰 범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일대의 범죄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주민과 상인이 안심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에도 힘을 계속 기울인다.

위성곤 지사는 “주민의 눈으로 지역의 위험을 살피고 안전을 지키는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이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연합대가 각 지역대의 경험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행정과 경찰, 지역사회를 잇는 민관협력의 든든한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 중상

제주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56분쯤 제주시 오라동 모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A씨가 10m 높이에서

낙하물 안전망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양측 어깨 탈골과 우측 다리 타박상 등 중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위영석기자

“주민 손으로 무너진 4·3성 복원 큰 의미”

하호마을회·돌빛나예술학교 무너진 4·3성 보수
소실 심한 일부 구간 남아… 앞으로 3곳 더 복원

“제주 4·3 당시 마을 주민들이 손수 쌓았던 성터였으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무너져 소실 위기에 있던 4·3성을 행정 주관인 아닌 주민 스스로 복원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의미 있는 일이지.”

지난 7일 서귀포시 하호마을회가 추진한 ‘하호마을 4·3성 복원사업’에서 재능기부에 나선 돌빛나예술학교의 조환진 교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이날 마을 주민은 물론 호돈동 관계자, 전문 돌쟁이 5명과 교육생 등이 동참해 복원의 손길을 보탰다.

조환진 교장은 “2015년부터 매월 셋째 주에 돌담봉사활동인 ‘다우게양’을 벌이고 있는데, 직접 마을회에서 4·3성을 복원한다고 해서 일정을 조정해 재능기부에 나서게 됐다”며 “4·3성은 개인 돌담이 아닌 마을공동체가 만든 것으로, 마을의 돌을 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무너진 성을 복원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호마을의 사례는 대체적으로 도내 4·3성 복원이 관 주도라 전문업체에 맡겨지면서 복원현장에서의 마을주민을 배제하는 형태와는 다르다”며 “주민들이 마을에서 난 돌을 직접 없으며 성을 복원하는 일은 1948년 축성 당시의 마을 주민들과의 연속성을 갖게 하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삼용 하호마을회장은 “하호 4·3성은 겹담으로 돼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돌빛나예술학교의 재능기부로 무너진 성의 일부 구간(10m가량)을 복원할 수 있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길이 나고 발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등 얼마 남지 않은 4·3성을 복원하고 관리하는데 마을이 주체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제주에선 가장 큰 사건인 4·3 당시 마을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막아준 4·3성



지난 7일 서귀포시 하호마을회가 추진한 ‘하호마을 4·3성 복원사업’ 현장 모습. 강경민 작가

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성담이 무너진 3곳에 대한 복원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당시 17세 나이로 직접 성을 쌓았던 구순을 남긴 고성수 어르신이 축성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당시 자신의 집이나 밭에서 돌을 갖고 왔고, 마을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나와 성을 쌓는데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하호마을회는 성 복원을 앞뒤 3t

트럭 4대 분량의 돌(산담)을 마을 공동목장에서 옮겨 준비했고, 중장비를 이용해 성 하단부를 정비했다.

현재 호돈중학교 북쪽 지점에 위치한 ‘하호마을 4·3성’은 1948년 제주도 전역에서 4·3사건을 발발하자 마을 주민들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15일만에 축조했다. 4000m에 가까운 길이로 높이는 227cm, 상단부 폭 76cm, 하단부 폭 155cm로 축성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소실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창고 화재 잇따라

창고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4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소재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경면 양돈장서 외국인 노동자 2명 사망

양돈장 하수처리시설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 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와 네팔 국적 30대 남성 B씨가 정화조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정화조 내 수중 펌프 이

불은 창고 내부에서 시작돼 창고를 모두 태우고 주택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8시 2분쯤 제주시 오라3동의 한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는 오토바이 대여점의 정비실로 쓰이던 조립식 건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양유리기자

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진입했고, B씨는 A씨를 구하고자 정화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화조 내부에는 50%가량 분뇨 등이 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고 접수 50여 분만인 오전 8시 47분과 57분쯤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양유리기자

‘강풍주의보’ 속 곳곳서 바람 피해 잇따라

순간풍속 20m/s 강한 바람… 나무·간판 등 파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밤 9시 6분쯤 제주시 아라2동에서는 간판이 흔들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9일) 새벽 1시 16분쯤 제주시 한경면에서는 어닝(그늘막)이 흔들려 소방이 출동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산지와 제주시 동부, 서귀포시, 추자도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순간풍속 20m/s(산지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또 제주도북부앞바다, 남해 서부서쪽면바다, 제주도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제주도남쪽면바다와 제주도남부앞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풍랑특보 발효 해상에는 바람이 9~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5.0m로 높게 일겠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특히 중문 해수욕장 등에서는 이안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의(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점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수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위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